전남도교육위원 9명 중 6명 광주 거주…'위장전입' 의혹

"일부는 지역구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등록 … 주민세도 안내"

나승옥 전남도교육위원이 주소지 이전으로 위원직을 상실한 가운데 전남교육위원 9명 중 상당수가 주민등록상으로만 '전남'일 뿐 사실상 '광주'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져 위장전입 의혹이 일고 있다.

8일 전남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 등에 따르면 도 교육위원 9명 가운데 나 전 위원을 포함한 6명의 실제 거주지가 광주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이 중 1~2명은 자신의 지역구에 마련된 거주지와 광주의 거주지를 오가며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남도교육청 의사국이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은 물론 전남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한 '교육위원 일람표'에도 9명 중 6명의 연락처가 광주로 돼 있다.

이와 관련, 도 교육청 의사국 관계자는 "교육위원들이 자주 머물러 있는 곳을 연락처로 해 놓았다"면서 "이는 교육위원들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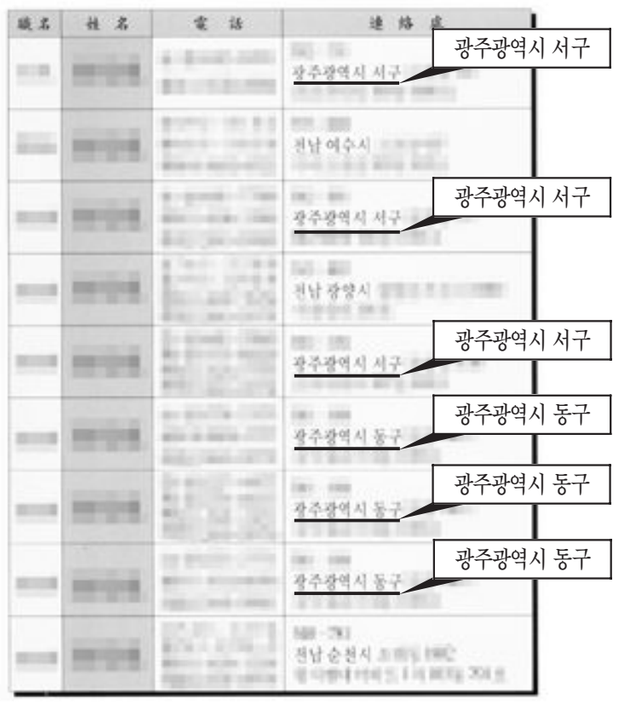
이와 함께 일부 위원들은 자신의 지역구에 거주하는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등록해 놓고, 세대당 부여되는 주민세 등도 납부하지 않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교육당국 관계자는 "전남에 본인 소유의 주택도 없이 친척집에 동거인으로 해 놓은 교육위원도 있다. 주민세도 내지 않고 있다"면서 "짧게는 3년에서 길게는 10년 넘게 광주에 살고 있는 위원도 많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이것은 엄연한 위장전입으로 피선거권이 있다고 볼수 없는 만큼 해당 위원들은 위원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해당 자방자치단체에 알리지 않은 교육위원회나 도 교육청 의사국, 주민등록 업무를 소홀히 한 읍·면·동장도 업무 불성실로 징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주민등록법(제 37조 3항)에 따르면 주민등록 또는 주민등록증에 관해 거짓의 사실을 신고 또는 신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또한, 거주지 이전 시 14일 이내에 전입 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관련법의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사항이 정정 또는 말소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도교육청 의사국이 지난 7월 1일자로 교육청 본청 및 지역교육청과 전남도내 모든 초·중·고교에 배포한 '전남도교육위원 일람표'에 위원 9명 중 6명의 연락처가 광주로 기재돼 있다.

광주 119 구급대원은 '번개'

5분내 현장 출동비율 62% … 전국 3위

119 신고시 광주지역 구급대원이 5분 이내에 현장에 출동하는 비율이 해마다 높아져 지난해 전국 3위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 김태원(경기 고양시 덕양구을) 한나라당 의원이 8일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광주지역 119 구급대 이송인원 4만3천403명 중 5분 안에 도착한 경우는 61.6%(2만6천744건)로 16개 시·도 중 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국 평균 도착률 45.4%보다 16.2%p 높은 수치다.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57.9%(1만8천778건), 58.4%(2만961건)이었다.

반면 전남지역은 5분 이내 도착비율이 40.3%(2만3천584건)로 전국 평균보다 낮았다.

/이종행 기자 golee@kwangju.co.kr

주소 옮긴 교육위원 직위박탈

전남교육위, 선관위에 나승옥 위원 퇴직 통지

초유의 사태 … 3년간 위원활동·보수 적법 논란

전남도교육위원이 선거구 주소지를 이탈한 것으로 드러나 퇴직 조치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빚어졌다.

특히 해당 위원이 위원직 상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후 3년 가까이 위원회 활동을 해와 그동안 처리한 조례안과 예산 및 결산 승인을 비롯 의정활동 보수 등에 대한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전남도교육위원회는 8일 "지난 2006년 9월 전남 제 1선거구(나주, 영광, 함평, 무안, 장성, 담양)에서 제 5대 전남도교육위원회 위원으로 당선된 나승옥(66) 위원이 피선거권 박탈로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퇴직 및 궐원(闕員)을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위 조사결과, 나 위원은 지난 2006년 11월 자신의 선거구 주소지인 함평에서 광주 북구로 주소를 옮긴 뒤 2007년 2월 광주 서구로 이전했다가 2008년 3월 함평으로 재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제 7조)은 지방의원이 시·도간 주소지를 벗어나면 피선거권 박탈로 자동 퇴직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위원도 이 법률을 적용받는다.

이처럼 3년 전 주소를 옮긴 사실이 뒤늦게 밝혀진 것은 최근 의장 불신임 파동 과정에서 생긴 위원 간 갈등이 주 원인인 것으로 알려졌다.

나 위원의 퇴직 조치에 따라 의원직 상실의 원인 행위가 이뤄진 지난 2006년 11월 이후 현재까지 나 위원의 위원회 활동 및 보수 지급에 대한 적법성도 논란이 되고 있다.

나 위원은 지난 3년간 1억여원의 의정활동비를 받고, 조례안 35건, 예·결산안 12건, 동의안 11건, 기타 186건(회기 결정·회의록 서명·휴회 가능·현지 확인·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등 모두 244건의 의정활동에 참여했다.

하지만, 전남도교육청 의사국은 퇴직 이전의 행위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사국 관계자는 "선거구 주소지 이탈에 따른 퇴직 조치는 지난 91년 민선 교육위원회 출범 후 전국에서 첫 사례로, 이탈 이후 의정활동에 대해선 관련 법 조항이 없어 유권해석을 할 수 밖에 없다"면서 "법의 안정성 이론에 따라 퇴직 이전의 모든 활동은 인정해야 한다는 게 중론"이라고 밝혔다.

이에대해 나 위원은 "당시 도교육청과 교육위원회가 광주에 있어 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면서 "사실상 광주에 거주하면서 함평에 거주하는 것처럼 위장한 것은 교육자 출신으로 양심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의장선거 겨냥한 계략 아니냐?"

■ 오늘 선거 … 하루 앞두고 퇴직처리 뒷말 무성

전남도교육위원회가 후임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둔 8일 교육위원 1명이 전격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나 위원은 이날 지난 2006년 9월 제 5대 교육위원으로 당선된 뒤 3개월 후 주소를 함평에서 광주로 옮겼고 동료 의원 일부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그동안 문제를 제기한 위원은 없었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나 위원은 "2006년 11월 교육위원 2명과 함께 주민등록법 등을 얘기하던 중 주소지를 이전한 사실을 말한 적이 있다"며 "이후 대부분의 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선거를 하루 앞둔 이날 나 위원의 위원직 상실이 결정되면서 일부 위원들 사이에서 의장 선거를 겨냥한 계략이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A위원은 "의장 선거를 하루 앞두고 직무대행인 부의장이 동료 위원 자격 상실을 전격 처리한 것은 선거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9일 의장선거에는 나 위원을 제외한 8명이 참가하고 5표 이상을 얻어야만 당선된다. 애초 전체 위원 9명 중 6명이 서견용 전 의장 불신임에 동참한 것으로 알려져 최소 1명만 이탈해도 4대4 동수(同數)가 되는 등 변수가 적지 않다.

B위원은 "실제로 특정인이 전(前) 의장 쪽으로 선회하면 동수가 되고 연장자 우선 등 의외의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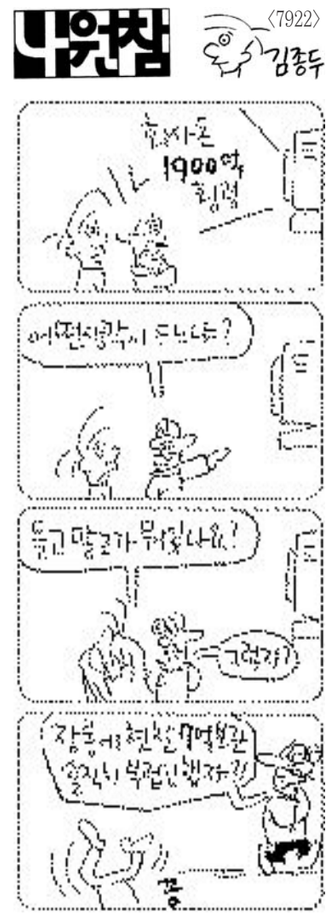
교육위원직 승계 차점자 김목씨 유력

전남도교육위원회 나승옥 위원이 퇴직함에 따라 선거 당시 차점 득표자인 김목(보성 문덕초 교사)씨가 위원직을 승계할 것으로 보인다.

8일 나주시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교육위원이 퇴직하면 교육위원회는 퇴직위원의 선거구 선관위에 이를 통지해야 하고, 해당 선관위는 선거 당시 차점 득표자를 승계자로 지정하게 된다.

따라서 지난 2006년 9월 제 1선거구에서 451표로 당선된 나 위원이 퇴직함에 따라 당시 364표를 얻은 김목씨가 다음 승계자의 자격을 얻게 된다. 다만 김씨에게 결격 사유가 발견된다면 당시 3위였던 한연석(272표)씨에게 승계자격이 돌아간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코레일 직원 열차 치여 숨져

8일 오후 3시께 광주시 광산구 운남동 극락강역 인근 철로에서 한국철도공사 광주본부 소속 천모(52·토목3급)씨가 광주에서 용산방향으로 가던 무궁화호 열차에 치여 숨졌다.

당시 천씨는 선로 보수작업 관리·감독을 하던 중이었다. 경찰은 천씨가 작업중 혼자 걸어 갔다는 목격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김형호기자 khh@

"방문 수리 왔다" 속여 귀금속 절도

쌍나팔

○…아파트에 초등학생이 혼자 있는 사실을 미리 알아낸 뒤 방문 수리 온 것처럼 속여 금품을 훔쳐 달아난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광주북부경찰은 8일 이모(40)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1시30분께 광주시 동구 L아파트에 사는 한모(여·40)씨의 집에서 순금 팔찌 등 200만원 상당의 귀금속을 훔친 혐의.

○…절도죄로 징역 3년을 복역하고 지난달 17일 출소한 이씨는 다음날 L아파트 정문에서 한씨의 아들 K(9)군에게 접근해 부모의 귀가시간을 미리 알아둔 뒤 범행을 했으며, 경찰에서는 "출소해보니 생활비가 없었다"고 진술.

/이종행 기자 golee@